



[₹] श्वचःळेत्र'त्रे'सित्र'स्वन्युग्कुःळेत्र'स्गङ्ग्य॥

띨로빠의 항하수 마하무드라 대성취자 띨로빠 저

번역자: 까르마 텍촉 된마 (일문)

<u></u>

까규 대기원 법회



인도말로 마하무드라 우빠데샤 티베트어로 착갸첸뾔 맹악

위대하신 금강 공행모께 공경히 절합니다.

고행을 행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고통을 인내한 총명한 나로빠행운아인 그대, 이처럼 유념할지어다.

마하무드라는 보여 줄 수 없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허공을 누가 누구에게 보여 주겠는가?

그와 같이 자성의 마하무드라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꾸밈없는 본연의 그 자리에서 쉬어라. 속박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짐에 의심이 없도다.

비유하자면, 허공 가운데를 응시하면 보는 것이 멈추듯이, 그와 같이 마음으로써 마음을 본다면 망념 덩어리는 사라지고 위 없는 보리를 얻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안개 구름이 허공에 가득 차서 어디로 가지도 않고 어디에 머물러 있지도 않듯이, 그와 같이 그대 마음에서 일어난 망념 덩어리로 자신의 마음을 봄으로써 망념의 파도를 맑힌다네.

비유하자면, 허공의 자성은 색과 형상이 없고 희고 검게 물들거나 변하지도 않듯이, 그와 같이 자심의 핵심은 색과 형상을 뛰어 넘고 선악과 좋고 나쁜 특성에 물들지 않는다네.

비유하자면, 밝고 청명한 태양의 핵심을 천겁 동안 묵은 어두움이 가리지 못하듯 그와 같이 자신의 마음의 핵심은 정광명인데 다생겁의 윤회가 가리지 못한다네.

비유하자면, 텅빈 허공이라 말하지만, 허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듯이, 그와 같이 자심의 정광명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함으로써 성립되고 언어로 갖다 붙일 자리가 아니라네.

그처럼 마음의 본성은 본래 허공과 같고, 만법이 그것에 거두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네.

몸으로 행하는 행을 온전히 놓고, 본래 마음 자리에 편안히 머물러라.

말하지 말라. 말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아무 생각도 떠올리지 말고, 침 묵하는 만법을 보라. 몸은 핵심이 없어 텅 빈 대나무 둥치와 같다. 마음은 허공 한 가운데처럼 사유의 경계를 벗어난다. 그 상태를 버리지도 취하지 도 말고 놓아 두고 쉬어라.

마음 붙일 자리 없으면 이것이 마하무드라이다.

그것을 익히고 익숙해지면 위 없는 보리를 얻는다.

입으로 만트라를 염송하고 반야부와 율장, 경장부 등의 소의경전과 교의 로써 정광명 마하무라를 볼 수 없다.

탐심이 올라 오면 정광명을 볼 수 없도록 가려 버린다. 분별심으로 계율을 지키고 서언을 지키는 것은 본 뜻에서 멀어진다.

생각으로 짓지 말고 모든 탐심을 여의고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사라짐은 물거품과 같다. 머물지 않고 아무 것도 추구하지 않고 본 뜻을 여의지 않으면 서언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네.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극단에 머무르지 않으면 경장의 모든 법을 남김없이 보게 되리. 이 의미에 안주하면 윤회의 감옥에서 벗어나리. 이 뜻에서 평등히 주하면 모든 악행과 장애를 태우리라. 이를 '가르침의 등불' 이라 말하네.

이런 뜻에 관심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윤회의 강물에 휩쓸려 가리라. 악도의 고통이 다함 없으리. 가련한 어리석은 자여, 다함 없는 고통에서 벗어 나려는 자, 현명한 스승을 의지하라. 가피가 그대 마음 속에 들어오면 그대의 마음은 해탈하리라.

슬프다! 윤회의 법은 의미 없는 고통의 원인. 그대가 행한 (세속)법은 의미가 없으므로 의미 있는 핵심을 보라.

일체의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는 것이 견해의 왕이다. 산란심 없음이 명상의 왕이다. 애씀이 없음은 행위의 왕이다. 바램과 근심이 없으면 과보가 현전하리.

경계의 대상을 벗어나면 마음의 자성이 선명하고, 가야 할 길이 없으면 부처의 길에 도달함이라. 익숙한 경계에 익어지지 않으면 최상을 얻음이라.

슬프다! 세속의 법을 잘 살피라. 항상하지 못함이니 허깨비와 같고 꿈과 같도다.

꿈과 허깨비는 실재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비애를 일으키고 세속의 행위를 버리라. 윤회의 경계에 모든 집착과 분노를 끊어라. 숲이나 산중 토굴에서 홀로 앉아 명상하라. 명상할 것 없는 상태에 머물러라.

얻을 것 없음을 얻음은 마하무드라를 얻는 것. 비유컨데 나무 둥치에서 난 가지와 잎이 나무 둥치를 자르면 수 십 만 가지가 말라 버리듯이, 마음 의 근원 뿌리를 자르면, 윤회의 잎이 말라 버리네. 비유컨데, 천겁을 묵힌 어둠일지라도, 단 하나의 등불이 모든 어둠을 몰아 내는 것과 같이, 자심 의 한 순간의 정광명은 수 겁을 쌓은 무명의 악업과 장애를 없앤다네.

슬프다! 마음 작용으로써 마음을 벗어난 의미를 볼 수 없고, 만들어진 법으로써 행함이 없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네. 마음을 뛰어 넘는 행함이 없

는 그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자심의 뿌리를 끊고 오롯한 알아차림으로 머물러라. 망념으로 더럽혀진 물을 맑혀라. 현상을 차단(遮)하거나 성립(入) 시키지 말고 그대로 두라.

취사(取捨)함이 없으면 현상과 실재 마하무드라로 벗어난다. 오만과 아집으로 판단하지 말고 생함이 없는 핵심에 주하라. 현상은 스스로 나투고 분별심의 법은 없어지게 하라.

극단에서 온전히 벗어남이 견해의 수승한 왕이다.

끝 없이 깊고 넓음은 명상의 수승한 왕.

극단을 부수고 편견을 없앰은 행위의 수승한 왕.

바램 없이 스스로 주함은 과보의 수승한 왕.

업은 맨 처음, 깊은 골짜기의 물과 같고, 중간엔 갠지즈 강처럼 천천히 흐르고 마지막에 물은 어머니와 아들처럼 만난다.

영리하지 못한 사람이 본연 자리에 주하지 못하면 바람의 핵심을 붙잡고 정념을 흘려 보내 버린다. 응시하고 마음을 붙들어 매는 다양함으로써 정 념이 본래 자리에 주할 때까지 노력하라.

까르마무드라를 수행하면 락공지혜가 떠오르고, 방편과 지혜의 가피 속에서 입정에 들고, 천천히 내리고 소용돌이 치고, 돌이키고 거두어라. 그것의 자리에 이끌고 몸을 충족시켜라. 거기에 집착이 없으면 락공지혜가 떠오르리. 백발 없이 장수하고 달처럼 차오르리. 선명하고 빛나고 사자처럼 강건하리. 공통의 성취를 속히 얻고, 수승한 성취에 힘쓸 것이다.

이 마하무드라의 핵심의 가르침, 행운아의 마음 속에 간직할 지어다.



마하무드라를 성취한 위대한 띨로빠께서 12가지 고행을 해 마친 카시미

르의 반디따 나로빠에게 갠지즈 강가에서 말씀하신 마하무드라 금강 20 송을 마친다.

반디따 나로빠와 티베트의 대 역경사 마르빠 최기 로데께서 북쪽 뿔라하 리에서 번역하고 교정하고 유포시켰다. Kagyu Monlam Kagyupa International Monlam Trust Sujata Bypass Bodhgaya, 823231 Gaya, Bihar, India



이 저작물은 <u>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u>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AGYUMONLAM.ORG
DHARMAEBOOKS.ORG